

수출입 물류와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점검 등 경기지역 현장 행보

- 해수부 조승환 장관, 한진평택 컨테이너터미널(Container Terminal)과 기아자동차 부두 수출입 물류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
- 고온항 어촌 정주 여건 개선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당부
-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공군작전사령부 군 장병에 감사의 마음 전해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5일(금) 평택 지역을 방문해 연말 수출입 물류 현황과 고온항 어촌 정주 여건 개선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,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계속했다.

먼저, 조 장관은 한진평택 컨테이너터미널과 기아자동차 부두를 방문해 수출입 현황과 하역 상황 등을 보고받고 항만 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하면서 작업 중인 항만근로자들을 격려했다.

조 장관은 현장에서 “수출입 자동차 선적과 우리나라 기간산업(基幹産業)의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.”라며, “원활한 화물처리와 함께 항만 현장 하역근로자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.”라고 당부했다.

다음으로, 조 장관은 경기 화성시 고온항 어촌 정주 여건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을 점검하였다.

조 장관은 다목적 지원센터와 공동작업장 등 시설들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 “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어업환경이 개선되어 고온항이 경기지역의 대표 ‘수산특화형 어촌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.”라며, 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
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영공(領空)을 수호하고 있는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연말연시에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을 전달했다.

조 장관은 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“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덕분에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우리나라 하늘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, 군 장병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한진평택 컨테이너터미널 부두>	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	책임자	과 장	최종욱 (044-200-57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찬수 (044-200-5771)
<어촌정주 여건개선>	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	책임자	과 장	엄익환 (044-200-6170)
			사무관	조승래 (044-200-6174)
<국군위문>	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류종영 (044-200-5050)
		담당자	서기관	이근호 (044-200-5060)

